

#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기업 대응 전략 재점검 필요”

광주경총·조선대, 기업 특강서 제도·대응 방향 제시  
양주열 변호사 “쟁의 범위 변화 등 사전 대응이 중요”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기업이 분쟁에 노출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이다. 앞으로는 교섭 여부 판단만으로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노동법 분야 전문가인 양주열 변호사는 11일 광남일보 1층 연회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특별 강연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변화로 기업의 노무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축진단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할 기업 관계자들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

강연은 노동법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양주열 파트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지역 기업 관계자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주열 변호사는 이번 노조법 개정의 핵심으로 사용자 개념의 변화를 꼽았다.

양주열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은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 문제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며 “직접고용 요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 방식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쟁의의 적법성 여부가 사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이 당시에는 불법 파업이라고 판斷했더라도 이후 법적 판단에서 노동쟁의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기존과 다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대응 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더 이상 자동적인 대응 수단이 되기 어려

교섭을 해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사용자성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 행위나 노동쟁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양 변호사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 역시 기업이 주의해야 할 변화로 제시했다.

양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은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 문제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며 “직접고용 요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 방식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쟁의의 적법성 여부가 사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이 당시에는 불법 파업이라고 판斷했더라도 이후 법적 판단에서 노동쟁의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기존과 다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대응 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더 이상 자동적인 대응 수단이 되기 어려



11일 광남일보 1층 연회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특별 강연에서 양주열 변호사가 개정 노조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응은 오히려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노조법 개정은 단순히 불법

여부를 가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구조 속에서 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화”라며 “계약 구조

와 노무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글·사진=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해양에너지, 43곳 특별점검

(주)해양에너지는 겨울철 시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터미널, 공항, 지하상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광주·전남 내 다중이용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양에너지는 가스 누출 여부 점검, 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확인, 가스 누출 감지기 설치 및 작동상태 점검, 미사용처 마감조치 점검,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보일러 배기통(연통)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해양에너지는 기온 하강으로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대화의 기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 광주경총, 내일 휴리데이인서 류재언 변호사 금요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국내 최고 수준의 협상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 현장에서 서 바로 활용 가능한 소통·협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오는 13일 휴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협상 전문가 류재언 변호사(사진)를 초청해 ‘관계가 행복해지는 대화의 기술’을 주제로 제171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류재언 변호사는 홍콩과 한국을 무대로 활동해 온 기업분쟁·계약협상 전문가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alto Executive MBA 졸업교수이자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 대표변호사, 그 래비티벤처스 전략이사를 맡고 있다. 국내 기업과 유럽·중국 기업 간 국제

계약협상 자문을 다수 수행했으며, 협상과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저서와 방송 활동을 통해 실전 경험을 공유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류재언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 ‘대화의 밀도’ 등 다수가 있다. 방송은 EBS EBR+, SBS 빅뉴스 천, 세바시 15분, 연합뉴스, 신사임당 TV 등에 출연했다.

이번 강연은 협상의 심리와 구조를 출발점으로 요구가 아닌 욕구에 집중하는 대화법, 인정 욕구의 이해, 상대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 창조적 대안 개발, 숨은 이해관계인 파악, 협상 결렬 시 대안(BATNA)과 NPS 실전 협상 준비법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기업 영업·노무·계약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강연이 될 것으로

로 기대된다.

광주경총은 현재 896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 국내 최장수 조찬포럼을 운영하며 매주 금요일 저명 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CEO와 지역 노사 민정, 오피니언 리더 간 교류의장을 이어오고 있다. 회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양진석 회장은 “이번 포럼은 상대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드는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감정 표현과 공감 존중의 대화를 계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조찬포럼 관련 문의는 광주경총 회원사업부(062-608-9942)로 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홈플러스, 설 먹거리 물가 완화 돋는다

성수품·가족 먹거리 중심… 최대 50% 할인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설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하는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고기, 과일, 달걀을 비롯한 설 성수품과 연휴를 대비할 수 있는 음 가족 먹거리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물가 부담 완화를 돋는다고 11일 밝혔다.

또 명절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는 행사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갑 걱정을 덜어준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미국산 죄이스/호주청정우 냉장 찜갈비’는 40% 할인한다.

명절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품도 멤버십 혜택으로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훠나 노르웨이 생연어 전품목’은 40% 할인하고, ‘돼친 문어’, ‘남해안 생굴(250g)’과 ‘생 매생이(150g)’는 50% 할

인가에 선보인다.

이 밖에도 심플러스 적전류 10여종, 당면 10여종, 부침·튀김가루 4종, 햄·맞살·단무지·곤약 20여종, 떡국떡 10여종, 만두 20여종 등 차례상 준비 부담을 덜어줄 다채로운 할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또 명절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는 행사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갑 걱정을 덜어준다.

더불어 동계 스포츠 대회를 맞아 ‘집관’하며 즐길 수 있는 음원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한편, 14일까지는 벨런타인데이를 위한 마지막 할인 기회가 주어진다.

マイ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엠엔 엠즈 유리컵 기획팩, 너즈 구미 클러스터 등 행사 상품 200여종을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운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PRIMUM LIGHTING SYSTEM**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 빛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력  
빛과 기술을 창조하는 진우엘텍입니다



## 국내유일 자체생산 및 직접시공 스포츠조명은 진우엘텍!

“ 고객이 원하는 고객을 위한 기업 진우엘텍입니다 ”



### 진우엘텍 ONE-STOPO 서비스

자사의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통해 고객은 조명의뢰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처리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은 직접 처리되는 만큼 서로 정밀하게 일원화 되어있어 시공이 끝난 후에도 원벽한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 01 고객 상담 및 의뢰
- 02 현장 답사 및 설계
- 03 제품 생산
- 04 직립 시공
- 05 유지 관리

부산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 1008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90

홈페이지 : www.sports-lighting.co.kr

조명설계 및 제품문의

032.329.7160

KOREA NO.1 SPORTS LIGHTING  
JINWOO ELTEC